KIET

해외출장보고서

KIET 해외출장보고서 제12-033호

제 3회 한중산업포럼 석유화학분야 참여

- 남장근 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 출 장 자 : 남장근(+ 주대영, 홍성인, 정은미, 조영삼(현지 합류))

□ 출장기간 : 2012. 5. 15 ~ 5. 17(2박3일)

□ 출장지역 : 중국 북경

□ 출장목적 : 제3회 한중산업포럼 참석(중국측 석유·화학산업 주제발표에 대한 질문 및 코멘트) 및 석유화학 대기업(LG화학) 방문, 관계자 면담

1. 현지 출장일정

일자	시간	교통편	일정	비고
05월 15일	13:00-14:00	OZ333	인천공항 - 북경 수도국제 공항	남장근 (with 주대영, 홍성인, 정은미)
	저녁	현지 렌트카 (북경지원 조영삼 박사 마중·픽업)	원진(文津)국제호텔	
05월 16일	오전	호텔→세미나장으로 이동(택시)	朱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중국 석유·화학공업 12차5개년 규획 발전과 전망)	-
	오후	한중산업포럼 행사 준비, 참석 (석유화학 분야 코멘트, 질의)		
05월 17일	오전	택시	LG화학 북경법인 방문, 金光中 총재 면담	단독
	17:55-20:55	OZ336	북경 수도국제 공항 - 인천공항	-

2. 방문 기관 및 면담내용

(1) 한중산업포럼(중국측의 석유·화학산업 주제발표에 대한 질문 및 한국의 구조조정 경험)

□ 질문

○ 한국에서 석유화학산업이란 기초유분(에틸렌·프로필렌·벤젠 등), 중간원료(SM·EDC·VCM 등), 3대합성재료(합성수지·합섬원료·합성고무)만을 의미함. → 중국은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정밀화학, 의약, 고

무/플라스틱 제품 및 합성섬유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

→ (朱) 중국에서도 통계국, 공업정보화부, 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기관별로 각각 화학산업의 범위가 다름.

○ 발표자료 5페이지 (3) '기술 및 장비 수준 향상'

- 두 번째 줄 "일부분은 세계 선진수준 도달" →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인지? (그 아래에 나오는 장비들인지?)

→ (朱) 구체적 품목이 아님. 증류타워 등 일부품목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음. 또, 중국의 경우 구미 선진국 등과 달리 석탄화학공업도 세계적 수준에 올라서 있음.

○ 12·5규획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2015년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위상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는지?

- 중국 석유화학의 자급률 수준, 에틸렌 생산능력, 합성수지 생산량 등의 세계순위, 주요품목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등

→ (朱) 12·5규획은 최소한의 달성기준을 목표치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에틸렌 등의 양적인 생산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함. 그러나, 구체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는 품목별로 각양각색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함. 다만, 품질개선 목표의 달성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미국에서는 Shale Gas 개발이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셰일가스를 석유화학 제품 원료로 사용하면 지금의 중동 에탄(Ethane) 가스 수준으로 생산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함.

- 중국에서는 언제쯤 셰일가스를 채굴하여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예정인지? (12·5規劃이 끝난 후인지?)

→ (朱) 중국 중앙정부는 채굴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각 지방(省) 정부가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화할 경우 제조공정 등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바뀌어야 하는 데다 채굴비용 및 기술확보 등 아직은 난제가 많음.

○ 현재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량 비중은(대략적인 수치)?

→ (朱) 대체로 정유 및 원료 부문의 경우 외자기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석유화학 제품 및 타이어 등 완제품 분야에서 외자기업의 비중이 높음. 그러나 각 품목별로 구체적인 외자기업 비중은 파악이 곤란함.

□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사례

○ 한국 화학산업의 위상

- 석유화학 생산액 : 한국 제조업의 6.5%('10년)
- 석유화학 수출액 : 456억 달러(한국 총수출의 8.2%; '11년)
- 정유능력 : 세계6위('10년)
- 화학산업 총생산액 : 세계6위('10년)

○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부문은 상위 대기업(財閥企業) 중심의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

○ 1990년부터 투자자유화 조치로 현대, 삼성 등 재벌기업들의 시장진입이 본격화, 각 기업이 설비증설 경쟁을 벌이면서 1996년에는 설비과잉 및 재무 건전성 악화가 야기됨.

○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정부주도로 구조조정 실시

- 수익성 및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경영난 극복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 비주력사업에 대한 자산매각, M&A, 한계기업 퇴출, 외자유치 등 비자발적인 차원에서 단행됨.

○ 2000년 이후 품목별로 생산기업 수가 다시 증가, 경쟁 심화

- 생산규모가 내수물량의 약 2배, 기업당 생산규모는 중국, 사우디, 대만 등에 비해 작음.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특히 對中 수출) 부진으로 재고급증, 가동률 하향조정, 채산성 악화, 중동산 저가제품의 중국시장 침투 증가 및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재차 구조조정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2) LG화학 북경법인 ('12. 5. 17)

방문업체	면담자	비고
LG화학(주) 북경법인	김광중 총재(현지법인장; 전무) 손흥기 총감(부장)	

□ 면담 내용

○ LG화학(주) 중국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거의 전량이 중국기업에 판매되고 있으며, 극소수(전체 매출액의 1% 미만)만이 현대자동차(주) 등 현지진출 국내 수요기업에 납품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공장은 한국 내 공장보다 더 규모를 키워야,

급속히 성장하는 동시에 중국기업 및 선진국 외자기업의 치열한 각축장인 중국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

- LG는 1998년에 북경 근처 톈진(天津)에 공장 건설, PVC(연산 40만 톤) 생산, 닝포(寧波)에 ABS 공장(연산 50만 톤) 건설, 가동 중

- 한화석유화학(주)도 닝포에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 SK(주)는 중부의 우한(武漢)에 Sinopec과 합작으로 건설했으나 아직 가동이 원만하지 못함.

- BASF, Shell, BP, 러시아기업 등도 잇달아 중국에 공장 건설, 바야흐로 춘추전국시대(치열한 각축장)를 맞이하고 있음.

○ LG화학은 중 고객기업에 단순히 석유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설비의 보완, 개선 및 품질·환경·안전 등 경영활동의 주요부문에 걸친 컨설팅·지도도 실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고객기업은 기존 생산설비를 가지고 생산능력을 200%로 확장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크게 만족하고 있음.

○ LG화학의 경우 중국에는 R&D센터가 없으며, Tech Center만 설치되어 있음.

- 기계공학, 환경공학 등 분야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용연구를 커버하고 있는데, 신제품 개발의 경우 한국 본사의 지원을 받음.

- 이들의 각종 컨설팅 활동을 통해 중국 현지 고객기업과의 유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음.

○ 신성장 동력사업 - 본사에서 정보전자 분야(OLED, 대용량 저장용 배터리 등의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 중이며, 일부는 개발단계

- 태양광 발전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사업 자체가 정부 조달을 통해 수요가 창출되는 전형적인 '관급(官給)시장'인바, 현재 우리정부의 예산감축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보류, 중단한 상태임. →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견지해야 기업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음.

- LG도 공장신축을 보류한 상태이며, 획기적인 제조기술의 진보가 있지 않는 한 시장이 불투명한 현 단계에서 생산은 무리임.

- 석유화학의 upstream 부문(원료 - 나프타분해, 저렴한 에탄베이스 폴리올레핀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 → 후자의 경우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공장 건설 중

- 생분해성 PLA수지 등은 아직 연구단계이며, 시장규모가 작음.

- LG는 그동안 범용 base resin 사업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석유화학 범용분야는 더 이상 발전이 곤란 ⇒ LG는 자동차용 전지 사업도 확대하는 등, 고부가가치 정보전자용 신소재 사업에 진출 ⇒ 중국정부의 전기자동차 생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여 무한한 수요 전망

- 자동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LG는 중국 자동차기업들(長春第一汽車, 長安汽車, 廣州汽車 등 5대 기업)과 제휴하여 공동개발에 힘쓰고 있음.

- 또한 미국 미시건주 홀랜드에 GM과 합작으로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으며, 양국이 공동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늘려갈 방침임.

○ 한·중 FTA의 조기 체결을 통해 동북아 시장이 Free Trade 지역으로 발전해 가야 함.

- 이미 중국의 경우, 북부의 톈진(天津)에서 남부의 광둥성(廣東省)에 판매하는 제품은 한국에서 직수출하는 제품과 거의 같은 가격임.

- 현재 중국 석유화학 시장의 경우 관세율이 높아서 수출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기업들이 얼마나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가가 더 중요함.

- 하지만 관세율이 인하되면 중국 (범용)제품의 한국시장 진출도 확대될 것이고, 국내기업의 경쟁품목과 시장이 달라지게 됨.

- 한국기업은 앞으로 한층 더 specialty 부문을 확대해 갈 수밖에 없는바, LG의 경우 범용제품은 카자흐스탄에서 생산하여 중국시장으로 우회수출 할 예정임.

○ 중동 및 중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초대형 플랜트를 건설하여 범용제품 분야를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한국기업들이 망할 것으로 보지 않음.

- 석유화학은 스페셜티 등 신성장 부문 제품의 종류가 매우 많아 세계시장 수요가 왕성하며, 아직도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음.

- 예전과 같은 무리한 신증설 투자 경쟁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주도로는 곤란 ⇒ 기업 CEO가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Ex : 동부 - SM 폐기 발표 등)

- M&A를 한다 해도 간접비 정도만 절약될 뿐 큰 효과가 없으며, 오

히려 이질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 간의 합병으로 구성원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등, 부작용이 큼.

- '97년 IMF 위기 때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이른바 'Big Deal'을 단행함. → 대림산업(주)과 한화석유화학(주)이 NCC 부문을 통합하여 '99년 말 '여천NCC(주)'를 설립

- 그러나 지금도 양사간 경영권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노조도 따로 존재) ⇒ 국내에서 M&A가 잘 안 되는 생생한 사례임. 기업풍토가 서구와 매우 다르기 때문임.

○ 'China Risk'에 대하여

- Country Risk는 어느 나라에나 다 있고 중국시장은 아직 리스크 요인보다 기회요인이 더 많으며, 급속히 성장하는 신흥국 중 가장 시장규모가 큰 나라임.

- 선진국의 경우 비록 법제도 등 사회 전반이 안정되어 있지만,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전에 低마진 시장이 됨.

- 다만, 중국시장이 전세계 주요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어 있는 데다, 중국 토착기업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고 실력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점이 위협요인임.